

기관(학교)-8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 학교 □ 지역사회 교육기관

사례명	실수 해도, 늦어도 괜찮아!!					
응모자	시·도명	○○○	기관명	○○고등학교	성명	○○○

1. 프로그램 운영 배경

본교는 2021년에 개교한 신설학교로 ○○시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과주 등 왕복 4시간 거리에서 등교하는 학생, 40분 거리 주택가에서 등교하는 학생 등 다양한 지역에서 등교한다. 또한 가정의 형태는 한부모가정, 이혼 및 재혼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하며,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어서 학생과의 갈등도 존재한다. 또한 공부에 대한 관심은 양극화가 심한 편이며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과 무기력한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이 심하며 부모와 진로 갈등으로 학교 부적응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 문제로 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학생의 학교 부적응이 발생하고 또 교우관계의 어려움과 학교 소속감 부재로 학업중단이 발생 하기도 한다.

개교하면서 1학년 7학급의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이후 2022년에는 16학급, 2023년에는 26학급, 2024년에는 29학급의 학생들이 ○○고에서 생활하고 있다. 신설된 학교라서 이동이 많은 편이며 학업중단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진 못했다. 2023년까지 학업중단율은 다음 표와 같다.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교생	150	366	633
학업중단 학생 수	5	14	17
학업중단율	3.3%	3.8%	2.6%

학업중단 요인을 분석해 보니 대인관계 갈등으로 학업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와 무기력한 학생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학업중단을 요청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실에 들어가기가 겁나 학업중단을 요청하는 등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문제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려는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많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적 문제도 학업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업중단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는 학업중단 집중지원학교를 신청하여 예산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우선 위클래스를 상시 개방하여 힐링과 사회성이 증진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수업 전 아침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위험군 학생과 담임교사의 협조로 반별로 위기학생들의 명단을 받아 개별 상담을 진행했고 위기학생을 선별할 수 있었다.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학생은 부모 상담 후 병원진료로 연계하였고 위클래스 상담도 병행하면서 변화를 도모했다. 특히 대인관계 갈등과 무기력, 낮은 자존감의 상황은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지속적인 지지관계를 통해 버텨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역할을 위클래스를 통해서 하고자 하였다. 위클래스를 개방하여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위클래스 행사를 통해 이벤트도 많이 열고, 간식도 주었다. 처음에는 간식을 받기 위해 방문하던 학생들이 점차 위클래스에 와서 보드게임도 하고, 바둑, 장기도 두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장소로 변화였다. 이 힐링의 공간에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곳에서 친구관계,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또래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다. 친구가 없어서 고민이었던 학생, 친구 사귀는 방법을 몰라 학업중단 하고 싶어하는 학생, 친했던 친구와 싸워 이제는 말도 안하는 상황이 되어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은 학생, 하고 싶은게 없어 학교가 재미 없어진 학생, 진로가 달라 아무래도 학교 선택을 잘못된 것 같아 학업중단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학생,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집에만 있고 싶어 학업중단을 하고 싶은 학생, 사람들이 무서워 교실에 들어가기 힘들어 학업중단 하고 싶은 학생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중단을 하고 싶어했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며 서로에게 고민을 이야기 하고 답변을 얻어갔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고, 침묵 속에서 홀로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은 아이들이 생겼다. 고민을 들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함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또한 이곳은 교실에 있기가 힘들어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 이곳으로 들러 그 위기를 참아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위클래스는 힐링의 공간이자 버텨내주는 버팀목이자, 사회성 증진의 공간이 되었다.

2. 프로그램 운영 사례

□ 프로그램 명: 힐링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정서적 안정과 부정적인 감정 해소
또래관계 형성 및 사회성 증진
- 참여학생 수: 매일 15명~ 20명의 학생이 방문 함. 누적 학생수 총 200명
- 운영 기간: 2024. 4. 1.~ 2024. 10. 10
- 운영 인력과 역할 분담: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 예산 집행액(필히 작성)

항 목	산출내역	총 계
간식비	2,000원 × 50명 × 10회	1,000,000원
교구 구입비	4,000원 × 50명 × 2회	400,000원
합 계		1,400,000원

□ 프로그램 명: ‘사제동행’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학업중단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학생과 신뢰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노력

- 참여학생 수: 50명 (교사 10명)

- 운영 기간: 2024. 8. 1.~ 2024. 10. 10

- 운영 인력과 역할 분담: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 예산 집행액(필히 작성)

항 목	산출내역	총 계
문화체험비	15,000원 × 5명 × 10회	750,000원
식사비	15,000원 × 5명 × 10회	750,000원
합 계		1,500,000원

나. 프로그램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준비

구 분	내 용
학생선정 방법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위험군 학생 심리검사 및 진단검사를 통한 위기 학생 발굴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관찰 및 상담을 통한 위기학생 발굴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을 호소하는 학생

- 프로그램 진행

구 분	내 용
힐링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위클래스 공간에서 다양한 힐링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함 -만다리 미술치료 -식물테라피 -보드게임을 통한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힐링 위 카페 데이트 프로그램이 위클래스에 상시 준비되어 있음

구 분	내 용
	<p>프로그램을 진행 했지만 꼭 참여하라는 부담은 주지 않았음 무기력하고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이 될까 봐 프로그램 명처럼 자유롭게 위클래스에 방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학생이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도 됨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학생들 사이에서 상호 작용이 일어남</p> <p>프로그램의 효과 위클래스는 힐링의 공간이자 버텨내 주는 버팀목이자, 사회성 증진 의 공간이 되었다. 꿈이 없이 학업중단을 요청했던 아이가 그곳에서 성우의 꿈을 꾸고, 목소리 연기 연습을 하는 학생으로 변모 하였다. 일본 성우를 좋아하고 그와 관련된 만화책을 보면서 성우 연습을 하 고 노래를 부른다. 함께 있는 아이들도 함께 그의 꿈을 응원해 주면 서 지지를 보냈다.</p> <p>가정 환경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과 아침 일찍 만나 간단하게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마스크로 퐁퐁 숨겨왔던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꿈을 꿀 수 없었던 아이가 일본어를 배워 일본으로 가서 살게 되는 꿈을 꾸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p> <p>그림을 잘 그리는데 항상 자신이 없어 보여주길 부끄러워하던 아 이가 자신의 그림을 조금씩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칭 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예쁜 노트를 마련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p> <p>학생들과 '보드게임의 날'도 정해 보드게임도 하고, 위클래스 카페 를 열고 친구들과 방문하여 간식을 먹으며 수다도 떨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원예 활동을 신청해 함께 식물을 심어보고 길러보면서 서로 느낌을 나누어 보았다. 만다라 미술치료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 해 보는 경험을 쌓기도 하며 집중해 본 느낌을 이야기 하면서 이제 는 '하기 싫어요'가 아닌 '해볼게요'로 답변이 바뀌며 점점 밝아지는 모습들을 만나고 있다.</p>
<p>‘사제동행’ 프로그램</p>	<p>1차 : 학생의 교우관계 및 학교 적응력을 관찰하여 대상자 선정 2차 : 학생 상담을 통해 학생이 힘들어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 파악 3차 : 학생과 프로그램 계획 작성 4차 : 프로그램 운영 5차 : 소감 나누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계획함 ‘영화 감상’ 또는 ‘스포츠 관람’, ‘서점을 방문하여 진로 관련 책 찾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천함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됨 반에서 학생들의 변화가 시작됨</p>

구 분	내 용
	프로그램의 효과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비밀을 공유해 주는 친한 선생님이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고,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

－ 프로그램 마무리

구 분	내 용
평가회	프로그램 참여 소감 나누기, 프로그램 운영상의 보완점 의견 수렴 차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욕구 조사

3. 프로그램 운영 성과,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본교가 개교한지 4년차가 되었다. 학업중단율이 2021년에는 3.3%, 2022년에는 3.8%, 2023년에는 2.6% 였다. 올해는 현재까지 유학을 간 학생을 제외한 학업중단율이 0.4%이다. 아직 올해가 남아 있고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학업중단율이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을 요청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불안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한다. 그 내면에는 다른 학생과의 경쟁으로 인해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이 존재한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가는 것만 정답이라고 믿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과 똑같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생각되어 낙오되었다는 상실감으로 버거운 학생들에게 급하게 진로를 찾지 않아도 괜찮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알려주고 느끼게 해 주고 싶다. 실수하면 인정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늘 시간에 쫓기고, 한 번의 실수로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실수해도, 늦어도 괜찮다는 것을, 힘들면 쉬어 가도 되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싶다.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비밀을 공유해 주는 친한 선생님이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고, 위클래스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용기를 갖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버티 주는 교사가 되겠다.